

# 광양관광, 미래성장동력 기반 다진다

### 관광 슬로건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선포

### '희망트리'에 희망 메시지 달며 이색 풍경 연출

광양관광 도약 원년을 선포한 광양시가 관광을 미래성장동력 기반으로 다지기 위한 발걸음을 차근차근 내딛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시민과 관광 관련 사업자가 함께한 가운데 광양관광 브랜드를 위한 관광 슬로건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을 선포하고 BI (brand identity)를 전격 공개했다.

선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내·외빈 초청을 대폭 줄여 참석인원

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소독, 개인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각계각층 시민들은 행사장 한편에 설치된 '희망트리'에 광양관광 성공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달며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광양관광 슬로건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에는 광양관광의 밝은 미래와 가치가 녹아들어 있고, 야간관광



을 통한 체류형 관광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시민이 먼저 알고 사랑하는 자부심과 애정심이 중요하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어린 홍보대사가 되어 광양관광 발전을 함께 이

루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김성희 광양시의회 의장은 "오늘 광양관광 슬로건 BI 선포식을 시작으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여수시 8군데로 흩어진 청사 한 곳으로 모으자”...67% 찬성

여수시가 8군데로 흩어진 청사를 한 곳으로 모으는 분청사 별관증축에 대한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 의견조사는 선거여론조사 등록기관인 코리아정 보리서치를 통해 지난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여수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청사 별관 증축에 대해 찬성 67%, 반대 33%로 나타났고, 연령층 비율과 여수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비율도 전 영역에서 찬성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 67.7%, 여자 66.3%가 찬성했고, 연령층은 18세 이상 20대 73.9%, 30대 67.8%, 40대 58.3%, 50대 58.5%, 60대 68.8%, 70대 이상 79.1%가 각각 찬성했다.

여수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눈 조사에서도 제1권역 66.2%, 제2권역 58.7%, 제3권역 72.6%, 제4권역 73.8%, 제5권역 71.7%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청사 분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시민 불만 48.4%, 행정서비스 질 저하 14.7%, 도시경쟁력 저하 8.1%, 전남 제1의 도시 이미지 저하 4.7% 순으로 응답했다.

제2권역(여수·문수·미평·둔덕·만덕권)에서도 58.7%가 찬성했으나, 찬성비율은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분청사 별관 증축을 위한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여론지구 활성화 비전 제시 27.7%, 지역이기주의 탈피 22.1%, 정치권의 협력 17.2% 등을 들었다.

반면 33%의 반대 의견은 균형발전 저해, 현행 청사대로 유지해도 무방, 과도한 예산소요, 주차난 등을 이유로 꼽았다.

앞서 2018년 3월,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실시한 '3러통합 20주년 기념 시민의견조사'에서 통합청사 건립에 대해 찬성 40.5%, 반대 28.5%로 응답했다.

2019년 12월, 여수시 공무원 의견조사에서는 89.5%가 분청사 별관 증축에 찬성을, 3.6%는 통합청사 신축에 찬성을 보였다.

동부취재본부 정성웅 기자

## 장천동 순천종합버스터미널, 그래피티로 '활력'

### 세계적 그래피티 작가 심찬양 국내 최대 작품 선보여



순천시외버스터미널에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심찬양 작가의 작품이 등장했다.

터미널 뒤편 골목 건물 벽면에 그려진 그림은 가로 22m, 세로 19m짜리 국내 최대 크기의 작품으로, 그래피티를 통해 쇠퇴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

작품이 등장한 몽미락(夢味樂) 센터는 주민커뮤니티공간과 공유부엌, 예술인 공간 등 다양한 활동 공간을 갖춰 올 하반기 개관에 예정이다.

이번 작품은 미국계 한국인인

'벨라'를 모델로 그려졌다. 작가는 다양한 시선에 대한 포용과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만남의 광장'이 되기를 바라고, 장천동 도시재생사업 '몽미락'을 컨셉으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선택했다.

순천시관계자는 "심찬양 작가가 그린 작품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랜드마크의 역할로 장천동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명소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찬양 작가는 한국에 알려지기 전 이미 미국에서 인정을 받은 인물로 미국 곳곳에 한복 입은 흑인 여성을 그려 인종차별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렸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보성군, 울포솔밭해수욕장 '예약제'...코로나19 확산 방지

### 내달 11일 개장

보성군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7월 11일 개장하는 울포솔밭해수욕장을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년 여름철 군에서 직영하는 울포해수욕장을 개장하지 않기로 했다.

해수욕장 인력은 해수욕장 관리 인력으로 배치해 예약 접수 확인과 발열체크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개방된 해수욕장의 특성을 고려해 예약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진출입 통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예약제는 사전예약제와 현장 예

약제로 운영되며, 정부에서 구축한 '바다여행'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해수욕장 예약제는 코로나19 예방과 차단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는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관광 정책의 큰 실행 무대"라면서 "철저하게 준비해 관광객

과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포솔밭해수욕장은 1km에 이르는 은빛모래 해변과 수령 100여년이 넘는 해송의 숲, 마네랄이 풍부 한 천연갯벌을 자랑하고 있는 곳으로 8월31일까지 51일간 운영된다.

보성=김덕순 기자

## 고흥군, 수중관절 운동교실 운영

### 만성퇴행성질환 예방 및 관절염 통증 완화

고흥군은 지역주민들의 만성퇴행성질환을 예방하고 관절염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수중관절 운동교실을 시작하여 군민 100세 건강 지키기'에 들어갔다.

수중관절 운동교실은 1기(6월~8월), 2기(9월~11월) 6개월 간, 매주 화·목요일, 오후 2~4시까지 문화회관 수영장에서 1,920명을 대상으로 총 48회 운영하며, 수강생은 보건소 운동처방사의 지도하에 수중관절운동·에어로빅, 개인별 맞춤형 수중운동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운동교실 운영 전 사전조사로 혈압·당뇨·체지방률, 관절통증조사 등을 실시하며, 3개월 참여 후 사후조사를 실시해 건강상태 변화를 확인한다.



지난해 운동교실 참여자들의 사전·사후조사를 비교했을 때 관절염 통증이 44.8% 감소하였으며, 체중·비만도·허리둘레의 수치 감소, 근육량 증가 등의 효과를 얻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올해 3월부터 예정되었던 운동교실이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운영하지 못하고, 6월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실내체육시설)을 준수하며 발열체크, 호흡기 유증상자·타 지역방문자를 파악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정성웅 기자

#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